

[기획]

제3부 2세들의 힘겨운 나날

<1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대책 현주소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교육현장 무관심에 '또 한번의 소외'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선생님, 이거 답 맞아요?"

지난 1일 오후 2시 나주초등학교 2학년 한 편에 미련된 교재연구실 1, 2학년 정규수업을 마친 다문화 가정 자녀 6명이 인현정(여·58) 선생님과 함께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가끔씩 옆자리 친구와 장난을 치느라 깔깔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연필에 침을 묻히거나 한글교본의 연습장 칸을 채워가거나 수학참고서를 들여다보며 계산에 열중하는 아이 그리고 국어책을 소리 내어 읽는 아이 대부분이 1시간의 수업 내내 진지한 표정이다.



나주초등학교 1~2학년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자녀 중 일부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따로 마련된 교실에 모여, 전담 교사로부 터 국어와 수학을 비롯 학습성취도가 낮은 과목을 중심으로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더하기, 빼기를 연습하던 2학년 정권호(9)군은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모여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을 받고 싶다"며 싱글거렸다. 안 교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일부는 학습력과 의사소통능력,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방과 후 학교'를 통해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호응도도 높고, 효과도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남지역 일선 초·중·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부족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남지역 453개 초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27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이 학교는 지난 4월부터 이들이 참여하는 '방과 후 학교'를 가동시켰다.

의사소통능력이나 이해력 등이 다소 부족해 정상적인 학습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돕기 위해서다. 매주 월·화·목요일 정규수업이 끝난 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방과 후 학교에서는 한글 읽기와 쓰기, 수학 문제 풀이, 일기 쓰기 등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충수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나주초등학교를 비롯해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나주초등학교를 비롯한 2~3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교가 별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

대책 발표 1년 지나도 학교·당국 '팔짱만' 전남 453개교 중 특별교육 2~3곳 불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현실적 대책 시급

다문화 가정 자녀 우선 선정 ▲교사 및 또래 집단과 1대1 결연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 ▲교원연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 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언어발달이 늦어져 학습능력과 이해력 등이 낮은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을 따라잡지 못해 학교졸업 후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교육청 강홍숙 장학사는 이와 관련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의 경제·사회적 위치가 극히 취약해 일반 한국가정의 자녀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다"며

"특히, 유아기에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해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학습 이해도 및 성취력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장학사는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뤄지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나주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교의 경우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학교별로 2~3명 정도, 많아봐야 5명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들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들여 따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얘

기다. 강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서도 특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만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정도의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담당교사가 정규 수업시간에 이들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충분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만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아이들이 살려 당당한 한국인으로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도 점점 늘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2006년 13가구 19명에서 지난 5월 현재 8명이 더 늘어나, 16가구 27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다니고 있다. 부모의 출신국가는 일본 15명, 중국인 6명, 미얀마 2명, 필리핀 4명으로 다양하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아버지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외국인 엄마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이고, 자녀교육은 가정보다는 학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김순종 (나주초등학교 교감)

다문화 가정 자녀 가운데 상당수는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언어 발달이 늦고,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특히 지난해 초·중·고교의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장애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로 엄마가 외국인이며,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동료 학생들의 편견이나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초등학교에서부터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가정환경 상태를 파악해 기초학습 능력이 낮은 아동과 기초·기본 교육이 필요한 1~2학년 아동,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 ▲특기적성 교육과 ▲상담교사를 통한 대화방 열기 ▲부

진아 구제를 위한 특별보충학습 등을 꾸준히 실시해 학력 신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급 체제인 우리 학교의 실정으로는 전체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소수에 불과한 데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

및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활동이 아쉬운 현실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며,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지도, 교과보충 지도,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확대·개설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상담 및 전담 교사를 지정 배치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선배나 또래 친구들과의 결연을 활성화시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와 관련된 학습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지도하고, 또 비공개 대화방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연구기관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교사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인종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이 사라지고 또 다문화가정 자녀도 문화적인 부적응 없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text and tables. It includes listings for various types of properties such as 'LCE타워(주)', '한일지도판매(주)', '호성공인중개사', '토우드공인중개사', '다우공인중개사', '법원경매', and '지지경매컨설팅(주)'. Each listing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perties or services offered.